



정부, 축산 원자재의 관세·부가세 감면, 자조금제도 시행 긍정 검토키로

농림수산부는 지난 11월 13일 본회를 비롯한 축산 4 단체 (대한양계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한국종축개량협회) 공동명의로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축산 원자재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과 축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자조금제도(Checkoff System) 실시 건의에 대하여, 이를 적극 검토키로 방침을 정했다.

농림수산부는 우선 관계 전문기관에 이 문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11월 21일 본회에 회신해 왔다.

농림수산부의 연구 용역 계획(안)에 의하면 축산원자재의 관세가 경쟁상대국보다 높아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와 달리 양축농가 부담이 되고 있어 조세 형평의 원칙에 걸맞지 않다고 밝히고, 축산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양축농가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재원으로 충당하는 자조금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회가 중심이 되어 건의한 축산원자재(사료·수의약품·축산기구 등)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양축농가가 받는 경제적 혜택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양돈사료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하더라도 연간 7백 억원 이상의 농가부담을 덜어 주게 된다.

또한, 축산(양돈) 자조금제도가 실시될 경우 양돈산업의 유통개선, 가격안정, 수요개발, 생산성 향상, 종돈개량 등 산업발전에 소요되는 자금을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양돈업 발전의 자립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돈육수출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돈육수출협의회(회장: 전동용)는 12월 4일 양돈회관 회의실에서 협의회 활성화 방안의 모색과 아울러 돈육 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출 잔여육 처리방안 △수출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원료돈 구매에 관련된 사항 △수출검역제도 개선방안 등과 협의회 규정 제정 및 원료돈 공급계약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도축장 위생개선 방침

본회가 지난 11월 16일 양돈회관 5층 회의실에서 수출의무량 부여대상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건의한 돼지고기 수출도축장 위생 개선에 대하여 농림수산부는 11월 27일자로 >도살전

돼지 가성광견병 경기에서 또 발생

지난 6월 국내에서는 최초로 양돈업 등록업체인 경남 양산군 하북면 삼감리 원효농장(대표: 박효만)에서 돼지 가성 광견병이 발생하는데 이어 최근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청학리 소재 한일농원(대표: 차두홍)에서도 돼지가성 광견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 및 양돈업계를 초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안양가축위생연구소는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12월 3일부터 대만에서 종돈을 수입한 바 있는 경남·북, 충남, 전남, 경기도 일원 14개 농장에 대하여 농장당 100두씩 혈청을 채취·조사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월간양돈'88년 1월호에 게재 예정)

에는 필히 수축의 표면을 충분히 세척토록 하여 박피시 수축의 오염을 방지토록 하고 ▷작업 전 작업장 시설 및 작업인의 위생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작업인의 작업복, 작업모, 장화 등을 착용하게 하여 수축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장에는 검역관이 지정하는 사람이외는 출입을 통제토록 할 것 ▷수시로 작업장 기계, 기구류, 기타 설비의 청결유지 상태를 점검하여 위생적으로 수출작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국립동물검역소에 시달했다.

수돼지 7.5두는 거세를 못하므로 수출이 불가능하고, 암돼지 7.5두중 2두를 선발하고 나머지 5.5두 만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 정부의 안인 종돈 1두당 연간 수출 가능물량 150kg(비육돈 13두×12kg)을 66kg(비육돈 5.5두×12kg)으로 낮추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축산(양돈업) 규제방안중 개선방안 건의

본회는 정부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기업축산(양돈업) 규제방안중 종돈 1두당 연간 150kg을 의무적으로 수출토록 한 조치는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농림수산부에 건의했다.

본회가 건의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종돈은 연간 15두의 자돈을 생산하는데, 이중 종자돈

양돈업 허가업체 간담회 개최

양돈업 허가지침 개정에 따른 간담회가 11월 16일 양돈회관 대회의실에서 35개 양돈업 허가업체와 모돈과 종돈을 합쳐 500두 이상 사육하는 업체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림수산부 김광희 축산국장은 대규모 양돈장 돼지 수출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기업축산(양돈업) 규제방안을 설명하고 수출에 적극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당일 참석한 업체에서는 돈가 하락시에 만 돈가안정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돈농가에게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 가공능력은 연간 3,000여톤 밖에 안되는 작업시설에 비하여 허가업체를 수출의무화 할 경우 다수의 수출업체가 이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회 북미 양돈 연수단 귀국

본회가 지난 11월 20일 파견한 북미 양돈 연수단이 미국 켄사스시티에서 개최된 American Royal Livestock Show 및 관련산업을 시찰하고 12월 3일 귀국했다.

북미 양돈 연수단 명단

- △ 단운기(선창농장 대표)
- △ 김수자(순천종돈장 대표)
- △ 위명환(비동농장 대표)
- △ 전홍우(코리아화압 과장)
- △ 이경덕(세진농산 부장)
- △ 정낙경(동화농산 과장)
- △ 강수학(상천농원 부장)
- △ 전석환(본회 지도부 주임)

제40차 검정합격돈 45두 경매 예정

제40차 검정돈 경매가 오는 12월 19일(토) 오전 11시부터 이천군 마장면 소재 공인 중돈 능력검정소에서 개최된다.

당일 상장될 검정합격돈은 총 45두(Y 19두, L 7두, H 8두, D 11두)로서 평균 성적은 일당증체량 918g, 사료요구율 2.68, 등지방두께 1.69cm, 선발지수 184이다.

품종별 최우수돈은 덕원농산의 대요크셔(205), 송원축산의 랜드레이스(198), 동해축산의 햄프셔 동북(197, 203), 정원중돈의 듀록(204)으로 선정되었는데, 햄프셔의 검정 성적은 검정소 검정사상 최고 높은 성적이다. (()은 선발지수.)

특히 본회 검정소에서 경매되는 검정돈은 가성광견병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건강한 돼지들이다.

김해지부 양돈세미나 개최 예정

김해지부(지부장:김영립)는 12월 8일 김해 양돈조합 회의실에서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 및 세미나 일정

시 간	내 용	강 사
10:30~11:00	기 념 식	전 동용 회장 (대한양돈협회)
11:00~12:00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전원
13:00~14:30	국제화 시대에 따른 양돈산업의 대응전략	주 종환 박사 (동국대 농업경제학과교수)
14:30~15:30	양돈산업의 발전방향	한 백용 전무 (대한양돈협회)
15:30~	폐 회	

양산지부장에 방기조씨 선출



방기조 지부장

양산지부는 지난 9월 29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차인고 지부장 후임에 방기조씨(44세)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차인고 전 지부장은 지역사회의 양돈업 발전 및 기술 보급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섰으며 특히, 회원배가 등 조직관리를 잘 하여 중앙회장의 표창을 받은 바 있다.

■ 협회단신 ■

본회 전동용 회장 귀국



전동용 회장

본회 전동용 회장은 11월 27일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교류 협의회 대표단 회의와 한·일 친선 정기회의, 그리고 본회가 추진하고 있는 돈육수출 확대를 위한 협의를 마치고 12월 3일 귀국했다.

본회 전동용 회장은 현재 한·일 친선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제주지부 지역 간담회 개최

제주지부(지부장: 김상호)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동안 지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협회 활동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최근의 양돈동향과 양돈불황 대책에 관하여 의

견을 나누었다.

경기도협의회 정기 월례회의 개최

경기도 협의회(회장: 이명복)는 11월 17일 청량리 맘모스 호텔에서 본회 전동용 회장을 비롯한 서울·경기도 지역 지부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동용 회장은 돼지 불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돈육소비촉진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북 지부장단 월례회의 개최

충남북 지부장단과 전 지부장 42명은 11월 16일 청주여관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양돈불황의 타개방안과 돈육소비촉진 홍보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회의에는본회 김국진 홍보부장이 참석했다.

본회 인사 이동

본회는 지난 11월 10일 지도부 정관희 과장대리를 홍보부로, 홍보부 최승덕 과장대리를 지도부로, 지도부의 박혜영씨를 중돈능력검정소로, 중돈능력검정소의 소경애양을 지도부로 각각 전보 발령했다.

마산지부 신규 직원 채용

마산지부(지부장: 최상백)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 전희숙양 후임에 김막달양(19세)을 새로 채용했다.